

삶과 수행 둘이 아니니 일상에서 닦아라

진제 스님이 권하는 바른 참선법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

"시간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자기 직분에 충실 하면서 화두를 잡으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시비 분별이 떠나고 크고 밝은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서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공부 하면서 세세생생 행복을 누리는 공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사인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이 일반인에게 참선의 중요성과 바른 화두 참선법을 소개한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를 출간했다. 제 1부 언론과의 대담, 2부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 법거랑, 3부 국내의 고승과의 법거랑 및 선원 결제 법어, 4부 전법의 원류와 용어풀이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진제 스님이 40여 년간 참선을 지도해 오면서 세상을 향해 던진 깨침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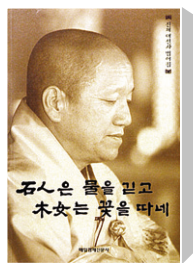
특히 이번 어록은 스님의 기존 법어집과 달리, 일반인에게 눈높이를 맞춘 생활선의 지침을 제공한다.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바쁜 현대인들은 앉아서 참선할 시간이 어디 있는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참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의심을 품고 생활하면 마음속의 번뇌와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게다가 참선은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니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닌, 일상속의 마음 닦는 법을 제시한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은 지혜에 달려있습니다. 참선으로 지혜를 개발하면 출세와 성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책에 따르면, 참선은 사람의 그릇을 키워준다. 마



진제 스님



음의 온갖 분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연히 마음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어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게다가 참선을 하면 직장이나 학생들의 이러 저러한 잡념을 없애줘 업무에 충실해지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참선을 하면 노인이 돼도 허리가 굽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며, 죽음이 다다라도 화두에 집중하고 있으면 고통 없이 물

을 벗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참선은 산속의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남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이 많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라고들 하지만, 진제 스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지혜가 없으면 남들 보다 뛰어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설법이다.

진제 스님이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수행을 통해 본래성품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수행은 출가자의 전유물도, 고행도 아니기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제 스님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른 지도를 받아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참구해 나간다면, 누구나 잃어버렸던 '참나'를 만나게 되어 모두가 영원히 꿈꾸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참다운 삶을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본래성품에는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는 무량한 지혜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참나를 찾는 수행은 배고픈면 밥 먹고, 졸리면 잘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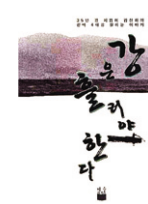
간화선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 참구하면 가장 빠른 성불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스님의 경험담이다. 설사, 이번 생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마음 닦는 수행을 실천해 나간다면 남들보다 앞서서 지혜를 갖추게 돼 원하는 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안심 법문이다.

새해를 맞아 진제 스님이 제시하는 다음 화두로 생활속에서 마음 닦는 습관을 들여보자.

"부모에게 이 몸 빌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스님 | 매일경제신문사 |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강이 흘러야 사람이 산다



강은 흘러야 한다
김상화 지음
미들하우스 펴냄 | 1만2000원

중국 고대의 치수책임자인 '곤'이라는 사람은 홍수를 막으려고 독을 쌓았다. 그러나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독은 터져버렸고, 곤은 홍수를 막는데 실패했다. 반면, '우'라는 왕은 강의 굽이마다 돌길을 파서 홍수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결국, 우는 상습적인 홍수를 막는데 성공한다.

이처럼, 막은 것은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말기에 강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며 호소하는 이가 있다. 낙동강공동체 대표, 운하백지화국민운동 공동대표인 이상화씨는 35년간 낙동강을 짝사랑해 발원지인 태백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1300리 길을 도보로 1370차례나 답사한 이다. 그가 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강에서 퍼올린 사람, 문화, 자연의 이야기를 섬세한 묘사를 통해 가슴 뭉클하게 풀어놓는다.

저자는 "강 살리기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데 있으며, 그 바탕에서 오염원과 상습 침수 혹은 물 부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김상화 지음 | 미들하우스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서로 아껴야 '행복열쇠' 발견할 수 있어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요령소리' 펴내

"이 세상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어쩌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온갖 것을 다 가지려 하는가?/ 혼신을 다하여 쌓아놓았던 것이/ 천만 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세원이 다해갈라 이 모두가 헛일인 줄 알았네/ 무엇을 가져 갈꼬/ 무엇을 두고 갈꼬/ 생각 좀 해보세/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자광 스님의 시 '공수래 공수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용인 반야정사·사건이 구도자의 삶에 에세이 형식을 빌려 쓴 <요령소리>를 펴냈다. 그동안 부처님 법을 알리는 일에 헌신해온 스님이 삶 속에서 만난 가지 경계와 단상을 글로 옮겨낸 법어집이다.

책에서 자광 스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주, 허공, 자연, 그리고 중생의 화생과 도움으로 살고 있으니 하루하루 나 외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당부한다. 스님은 귀한 인연으로 세상에 나온 모든 생명이 부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 '행복의 열쇠'가 들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선수행에 대한 스님의 안목은 '알았네(儂)'라는 다음 시에서 엿보인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도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진법계의 실상이여/ 만상이 들락거리는구나."

출가수행기간이 무려 50년(1960년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에 이르는 스님은 오늘도 군포교 현장에서 당산만의 '화두(話頭)'를 청진다.

"나는 너/ 너는 나/ 나와 너는 하나/ 그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령소리 | 자광 스님 저 | 사유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북한불교의 문화 현황 한눈에

'북한의 사찰' '오늘의 북한불교' 발간

해방 전 북한 지역에는 총 31본산 중 8개의 대본산과 430곳의 사찰이 있었다. 8개 대본산인 황해도 의패사와 성불사, 평양 영명사, 평남 법흥사, 평북 보현사, 강원도의 유점사와 석왕사, 함남의 귀주사 가운데 패업사, 영명사, 유점사, 석왕사가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사가 되는 등 많은 사찰과 성보문화재가 훼손됐다. 2000년대 들어와 남북 협력으로 북한 지역의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복원돼 현재 64곳의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불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엮을 수 있는 안내서와 북한 사찰 화보집이 나란히 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펴낸 <북한의 사찰>(서우석)과 공저는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주요 사찰(폐사지 포함), 북한의 불교문화재, 북한불교의 이해, 북한의 사찰재산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1993년 사찰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한 <북한사찰연구>를 현재 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 보완한 이 책은 70여 사찰의 현황과 역사, 남북분단 이후 북한불교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전국 폐사지 순례기 <인허진 가람탐험>의 저자로



서 '문화재보 호 기금법' 제정은 등과 폐사지 보존운동에 앞장서온 장용철 시인이 펴낸 <오늘의 북한불교>(진각종해인행)는 북한 사찰64곳에 대한 본격적인 컬러 화보집이다. 10여년간 북한불교와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존사찰 전체에 대한 현황과 500여 매에 달하는 필름 자료를 게재했다.

장용철 시인은 서문에서 "단청은 벗겨지고 도리는 썩어있어도 한번 전통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은 불도량은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함부로 밀쳐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시대의 불자로서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부분의 실상을 추적하고, 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섭수의 노력이 진행될 때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불교의 매듭은 풀릴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누구 없는가 | 법진 | 김영사 |
| 2 |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3 |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 | 진제 | 매일경제신문 |
| 4 | 건널 강이 어디 있꼬 | 대형 | 한아름선원 |
| 5 |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 방정갑 | 솔바람 |
| 6 | 운명을 바꾸는 법 | 장공 | 불광출판사 |
| 7 | 시는 즐거움 | 보경 | 들 |
| 8 |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 권영두 | 운주사 |
| 9 | 금강경 이야기 | 김동규 | 금강경총서회 |
| 10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 법정 | 문화의 숲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양산, 향엄, 임계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을 한 권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경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번아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양비 2500원 (50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거제도 총영사 이미지후불명화

거제도 총영사 신중명화

거제도 총영사 질정명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사찰 건축의 얼굴 문 "문"

확! 바뀌드립니다

빛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빛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PC고건축·사찰문·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